

光日春秋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가 시작되었다. 남은 시간이 지금까지 보낸 날보다 짧다. '잃어버린 2년 반'이 반복될지 아니면 반전의 시간일지 궁금하다. 대외정책은 이어진다. 민주당은 '기승전 윤석열 탄핵'과 '임기단축의 개헌'을 동시에 추진한다. 대통령은 24회의 재외요구권 행사와 '시행령 정지'로 맞선다. 1987년 이후의 민주주의 전통은 연이어 위협 받는다. 거대 야당은 합의우선의 원칙을 무시하고 '독식과 독주'를 새로운 관행으로 만든다. 대통령은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고 11년 만에 시정연설을 총리에게 미룬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걱정은 점점 높아진다. 세계 제로의 상황이다. 정쟁에 매몰된 정치권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하지만 이 상태로는 끝까지 못간다는 인식도 넓게 퍼지는 모양새다. 대외정책의 돌파구는 가능할까? 여야의 극단적 대립을 해소할 타협안은 없을까? 대통령 임기 후반 정부의 주요 변수와 포인트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삼각합수다. 여권부터 보자. 당장 관심은 윤석열 지지율이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은 조사마다 '최저치 경신' 중이었다.

종교칼럼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나는 화가 많아.", "나는 화를 잘 내요." 아마도 이런 말을 자주 하며 살 겁니다. 화가 많으니 자주 화를 내보내겠지요. 화라는 놈은 만들 때도 괴롭지만, 내보낼 때도 괴롭습니다. 어찌자고 쓸 데도 없는 화를 그리도 자주 만들어서, 사서 고생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화를 마음 속에 가득 쌓아두는 것이라 생각할 모양입니다. "화를 낸다", "화가 많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렇게 생각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슬픔이 난다.", "즐거움이 많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슬프다", "즐겁다", "화가 난다" 등은 감정을 나타내는 말인데 어찌된 셈인지 화만 혼자 명사일까요? 왜 그럴까요? 감정이 형용사인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감정은 내 마음의 상태이고,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언어이니, 감정은 당연히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보다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가 더 어울립니다. 감정 자체가 곧 나입니다. 나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나의 일부인 셈이지요. 유독 화는 다른 감정과 달리 명사입니다. 화는 나의 일부가 아닌 나와 별개의 그 무엇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주거나 받거나 하는 일종의 물건으로 취급하고 싶

기고



김덕모 호남대 대학원장

트럼프의 재집권과 함께 그가 펼칠 경제정책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다. 미국의 국익과 미국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는 자유무역체제에 반하는 관세정책의 강화를 강조했다. 심화되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를 대폭 인상하면 재정의 건정성은 담보되었지만, 물가상승이 예견되고 인플레이션의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큰 폭의 금리인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각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는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을 여하히 전개할 것인가이다.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트럼프는 강력한 중국 견제 정책을 펼칠 것을 선언했다. 특히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반도체 산업 분야에 대한 견제를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가 우리의 경제에 미칠 파장은 이해 특설의 관점에서 깊이 살펴야 할 대목이다. 이런 기조 속에서도, 중국 SMIC의 반도체 분야 약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미국의 대중국 직접적 견제를 피해 베트남, 멕시코 등 우회 진출로를 강화하고 모색하는 중국의 움직임과 대응 방안도 주목할 부분이다.

임기 후반의 변수와 첫 분수령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고까지 한다. 더 내려가면 국정 동력을 상실할 위기 앞에 선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당분간 회복 가능성이 높다.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 하락을 방어하려 한다. 핵심은 TK 지지율인데 "60%는 나오는 곳이 영남"이라는 주장과 "전국적 여론 흐름과 괴리는 힘들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최근 한 영남지역 대상 조사는 대통령 지지율이 45%였다.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의 인사와 쇄신 조치 등으로 국정 장악력을 높인다. '깜짝' 외교 성과까지 더해질 수 있다. 바탕은 민생 우선의 정책기조다.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대책도 내놓는다고 한다. 후반기엔 국민이 제갈할 진정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며 양극화 해소정책을 검토하여 소득과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 노력을 전개하려 한다. 한동훈 대표도 변신 중이다. 그는 "당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승리의 길로 함께 가자'는 화합의 메시지를 말한다. 대표의 측근은 "대통령이 한동훈이 제시한 쇄신열차에 탔다"며 "대통령이 5대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했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려 한다"고 말한다. 걸핏하면 내부 분란 일으키는 여당(대표)에서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는 '스트라이커 한동훈'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트리플 지지율 하락세 특히 TK와 국민의 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선호도가 낮아지는 게 부담이다. 전략도 용기도 없는 한동훈 차별화 정치의 한계다. 현재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권력 집중과 강화다. 국민의힘도 구심력이 높아진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까? 변수는 첫째, 대통령의 인식 변화다. 지금 상황을 제

화를 생각하노라면

은 모양입니다. 아마도 화를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절대 나의 마음이 아니야. 어디까지나 저 인간이 내게 준 것이야."라는 일종의 핑계와 명사로서의 화 안에 담겨 있다고 할까요. 내 것이 아니라 버려도 되는 그럴듯한 명분도 그 속에 함께 녹아 있습니다. 굳이 화를 명사로 쓴 것은 어찌된 일종의 희망사항은 아닐까요? 다른 감정들과 달리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떼어놓고 싶은 그런 바람 말입니다. 고통이라는 말을 하고 보니 어찌된 화는 감정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맛 중에서 매운 맛은 맛이 아니라 혀가 느끼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화도 역시 감정이 아니라 고통 그 자체가 아닐까요? 혀바닥의 고통이 맛을 느끼는 세포에 전해져서 우리의 뇌에 매운 맛으로 전달되듯, 감정을 느끼는 통로를 통해서 고통이 표현되다 보니 화로 표현된 것은 아닐까요? 과학적인 팩트 여부를 떠나 이렇게 생각하면 화를 대하는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지는 듯합니다. 심지어 화에 대해서 애절한 심정까지 듭니다. 실제로 불교에서는 화의 대상을 괴로움과 여러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화를 내면 마음이 불안하게 되며, 화는 온갖 악행을 야기한다고 하였습니

트럼프 시대...세계는, 우리는

미국의 국제관계와 대외 외교전략의 변화도 세계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러-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전쟁, 북한에 대한 대응 방식이 관심사이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든 민주당 정부와는 달리 러-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전폭 지지했던 정책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트럼프 당선자는 푸틴과의 통화를 통해 전쟁 종식을 강조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에도 똑같은 힘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종전이든 평화협정이든 전쟁은 마무리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 특히 이란과의 중동전쟁도 트럼프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전폭 지지한다는 점에서 중동 국가의 일부와 이스라엘이 동맹관계나 우호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는 가운데 상당 기간 중동의 평화가 담보되는 방향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을 전망해 본다. 트럼프 2기에서는 북한핵 문제와 북-미 관계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모든 경제의 9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라도 트럼프는 북한과의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의 핵무기를 묶어두고 감속하고 폐기하는 로드맵과 연계하여 북한 경제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중국 종속을 끊어내고 유럽과 서방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에 유입되고 자유주의 가치가 담으로 이식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트럼프 2기 산업, 국제정세 변화에 조응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되, 우리의 살

대로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게 출발점이다. 그래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다.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못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위기는 더 깊어진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에게 담대한 정치적 상상력이 강요될지도 모른다. 대통령의 책임감이 중요하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의견은 28%라고 한다.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에 공감한다는 27%에 불과하다. 둘째,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탈동조화나 동조화이다. 더블 하락이 계속되면 한동훈의 결속과 쇄신은 고민에 빠진다. '배신자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경계선이 되고 판단하느냐가 갈릴길이다. 관건은 스모킹 건이다. 사람들의 '김건희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게 되느냐. 다음은 대통령을 향한 수밖에 없다.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부부의 정치적 운명에 결정적일 수 있다. 야권은 단순하다. 이재명이나 아니다. 이 대표는 대선주자 선호도 1위이자 거대 야당의 연임 수장으로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린다. 조기 대선과 차기 집권을 위한 조직화를 진행 중이다. 변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다. 그는 '7개 사건 11개 혐의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트리플 사법 리스크'의 이 대표는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부인 김혜경씨의 법카 의혹 사건과 본인의 공선법 사건 그리고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선고다.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며 "당히 더 결속할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집권 가능성 높은 후보 제거의 정치수사와 기소'라며 정치검찰의 탄압으로 본다. 대통령 임기 후반의 첫 분수령, 이번 주 이재명 부부의 재판 1심을 주목한다.

하나도 빼먹지 않고 그대로 감지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백엔 양보한다 해도 그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화에 명사의 옷을 입히는 것은 화야말로 지극히 사회적인 도구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를 낼 대상이 없다면 화를 낼 이유도 없습니다. 길을 걸다가 잘못해서 돌부리에 채여서 발가락이 몹시 아프면, 제일 먼저 불뚝 화가 날 겁니다. 그러나 이런 화는 금방 사라집니다. 화를 쏟아낼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분노의 에너지는 상당기간 지속됩니다. 화를 분출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슬픔, 기쁨, 우울 같은 감정들은 소통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나에게 슬픔과 기쁨을 전달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우울함과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내보내기 위해 이런 감정들이 생기진 않습니다. 화야말로 인간이 인간과 소통하는 직접적이고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그 패턴이 원시적이고 직접적이고 폭력적이어서 현대 문명 사회와 어울리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소통과 공감으로 화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화의 에너지를 소통하고 공감하려는 욕망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화를 대상으로 삼아 이런 저런 잡생각을 하노라면 화를 담당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화를 끌어안고 토닥 토닥 하노라면 어느새 또 하루가 평화롭게 지나가곤 합니다. 개개인의 하루 하루는 희로애락으로 굴곡지지만 마련이지만, 멀리서 바라보는 지구별은 아름답지만 합니다. 굳이 하루하루에 일희일비 할 필요 있을까요?

길을 찾는 산업정책과 실리외교 전략을 잘 펼쳐야 할 것이다. 미국의 중국경제에 대한 압박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이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우리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이차전지 산업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시스템 구현이라는 원대한 '삼성몽'을 간직 하되 지금 당장 필요한 Si반도체의 고도화, 양산체제를 구현해야 한다. 고전이 예상되는 이차전지 산업분야도 기술력을 고도화하여 다시금 전기차 시대가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며 역량을 비축해 나갈 것을 바란다. 최근 현대자동차 정익선 회장이 미국의 포드, 일본의 도요타 CEO와 의기투합, 자동차 산업 발전의 비전과 모멘텀을 제시한 것은 우리 산업에 청신호라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실리외교 정책의 구현을 기대해 본다. 지금 당장 미국의 트럼프를 만나 동맹의 가치를 확고히 하고 험난한 국제정세의 파고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외교정책 구현을 기대한다. 미국의 견제를 예견하고 우리에게 노비자 방문을 허용한 중국의 지도자에게도 손을 내밀고 중국이 불만해하는 부분(사드 배치 등)에도 한 번 더 이해를 구하고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대화 복원에도 힘을 기울여 이해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북-미 외교 복원 속에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 광주도 소부장 국가산단과 기회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 기업의 투자유치는 물론 기자차와 금호타이어 이전 문제 등에 획기적 진전을 이루어 낼 것을 기대해 본다.

社說

지하철 2호선 2단계 착공...시민불편 최소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가 개시됐다. 광주시의 도심 교통은 그야말로 '교통 지옥'이라는 오명을 쓴 지 이미 오래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가 시작된 지난 2019년 이후 지금까지 광주 도심 곳곳이 공사장으로 변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지하철 공사는 물론 하수관 공사, 도로포장 및 차선도색 등 온갖 도로공사까지 겹쳐서 교통 체증이 만성화된 상태이다. 이 같은 2호선 1단계 공사는 2026년 완공 예정이다. 여기에 이반에 착공한 2단계 공사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는 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첨단지구~수원지구~읍남지구~시정을 경유해 도로 길이를 연결하는 20.046km 구간 순환선이다. 2호선 2단계 건설 공사는 2026년까지는 도로 곳곳에서 굴착공사 등을 동

시 다발로 진행한다. 여기에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조선대~광주역에 이르는 2호선 1단계 공사도 2026년엔 끝나기 때문에 출퇴근길 교통난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공사 구간과 현상이 많은 2단계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1단계 공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공사란 이해 수시 변경되는 차선과 공사 구간 변경 내용을 자주 알려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차량들이 물리는 출퇴근 시간대나 교통량이 많은 주말 시간대를 고려하지 않은 공사는 삼가야 한다. 마침 울초 광주시가 사-자지구-경합은 물론 교통 전문가까지 망라한 '교통혼잡 대응추진단'을 결성해 대책회의를 가진 것은 시의적절했다. 시와 추진단은 상시로 공사로 인한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책과 친한 인문도시 광주' 브랜드 경쟁력 있다

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묻는다면 대다수가 '인권도시'를 꼽을 것이다. 광주학생운동과 5·18민주화운동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긴 민주화운동은 모두 광주를 기반으로 한 불굴의 저항운동이었다. 이같은 민주화운동을 기반으로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담아 '광주정신'이라 하는데 광주정신은 곧 인권도시 광주의 도시 브랜드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인문도시 광주'로 불려야 할 것 같다. 광주시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책과 친한 인문도시'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그제 인문도시 광주 위원회를 발족하고 민간 주도의 책 읽는 광주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한 명당 매년 책 한 권씩을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작가-출판사-도서관-지역서점-독자를 연결하는 생태계 구축

도 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한강 작가의 고향으로 전국 유일의 '노벨상 도시'라는 점을 내세워 인문도시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추진하는 것은 나름 경쟁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광주시 동구는 6년전부터 인문도시정책과를 신설하고 조례를 제정해 인문도시 조성에 나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단순한 책만 읽는 문화가 아니라 독서서점에서 각각의 특색을 담아 북토크와 낭독회, 인문 강연을 하고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도서는 독서서점을 통해 구매하게 하는 독서 생태계 조성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강 작가는 "큰 기념관이나 화려한 축행장 시설을 원하지 않고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사는 광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인문도시 광주'가 새 도시 브랜드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 곁에 다가가는 세밀한 프로그램이 뒤따라야 한다.

無等鼓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의 베벨 광장은 독특한 지하공간이 있다. 가로·세로 1m 정도의 유리 바닥이 놓여있고, 그 아래 지하 공간에는 작은 도서관이 조성돼 있다. 이 도서관 책장에는 책이 없다. 과거 독일은 '광기의 시대'를 거치며 책을 불태웠다. 나치를 지지하는 극우 대학생들이 햇볕과 장작더미를 들고 에밀 졸라, 프란츠 카프카, 카를 마르크스, 지그문트 프로이트, 토마스 만 등 수많은 작가의 책 2만권을 불태웠다. 이날 밤 옛 지성은 잿더미로 사라졌다. 이 지하 도서관은 독일이 저지른 만행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공간이다. '책을 태우는 자는 사람도 태우게 된다'는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의 경고가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다. 이 도서관은 책과 인간을 불태웠던 독일의 과거를 가장 효과적이고 뼈아프게 '기억'하는 곳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사가 현재에서 완전히 지워진 과거의 일이 아니며, '우리의 발 밑' 공간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함께 숨 쉬고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느끼기에도 충분한 힘이 있는 곳이다. 베를린 의회 건물의 추모비도 빼

놓을 수 없는 '기억의 공간'이다. 나치가 살해한 96명의 독일 국회의원을 상징하는 각각의 96개 판을 어른 무릎 높이 정도의 크기로 만들었다. 삼각형 형태의 각 판에는 숨진 국회의원의 출생지와 출생연도 등이 기록돼 있는데, 서로 다다미다 붙어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름을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 정치적 신념을 꺾지 않고, 목숨을 내놓았던 정치인을 기억하는 추모비로는 의외로 규모가 너무 작다. 하지만 이 추모비를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각각의 판이 하나의 산처럼 보인다. 베를린 주변에는 산이 없으며, 그래서 작은 규모이지만 희생된 의원들의 추모비는 먼발치에서 바라보면 각각의 산이 어우러져 거대한 산맥을 이루고 있는 듯한 형상으로 보이기도 한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앞다퉀 관련 기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기억이 꼭 거대할 필요가 있을까. '한강의 기억'을 작가가 원하는 적절한 형태와 규모로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하다. /오광록 서울취재본부 부장 kroh@

Table with 2 columns: English and Korean text. English: The Kwangju Ilbo. Korean: 광주일보.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